



# 전북 '생생마을'...주민 주도 농촌 우수사례 한자리에

### 생생마을 콘테스트 우수마을 선정 마을' 안주서두·무주두문 최우수 고창유점 우수·남원 제천 장려상 '농촌' 정읍 칠보·진안 용담 최우수

전북도는 10일 도청 공영장에서 제1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마을만들기 및 농촌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의 전북지역 예선으로, 농촌 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도는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분야별 대표 마을을 추천받은 뒤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마을만들기 분야 4개 마을, 농촌만들기 분야 2개 지역, 농촌환경개선 분야 2개 지역을 본선에 선정했다. 이후 발표평가와 퍼포먼스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안주군 서두마을과 무주군 두문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주군 서두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토종생강을 기반으로 가공·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경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공동체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 두문마을은 주민들이 복원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 유점마을은 마을서당인 강학당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주민, 어르신이 함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며 농촌다움을 지켜온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제천마을은 마을기업과 태양광 사업을 연계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동체 중심의 마을가꾸기를 실천한 점이 돋보여 장려상을 받았다.

농촌만들기 분야에서는 정읍시 칠보면과 진안군 용담면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 칠보면의 칠보행복이음센터는 문화·돌봄·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안군 용담면의 용담솥을커뮤니티센터는 용담댐 수몰의 아픔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며 주민 돌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남원시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가 최우수상을, 김제시 죽산면 오후협동조합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주생면은 18개 마을 주민이 함께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앞장섰고, 쓰레기를 버리는 마을에서 자원을 나누는 마을로 변화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제시 죽산면은 빈집과 빈집포, 폐양조장 등 유휴공간 11곳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과 주민 상생이 공존하는 로컬 재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농촌



<사진=전북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남원시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가 최우수상을, 김제시 죽산면 오후협동조합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주생면은 18개 마을 주민이 함께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앞장섰고, 쓰레기를 버리는 마을에서 자원을 나누는 마을로 변화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제시 죽산면은 빈집과 빈집포, 폐양조장 등 유휴공간 11곳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과 주민 상생이 공존하는 로컬 재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농촌

소멸 대응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5개 마을·지역은 오는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전국 각지의 우수 마을과 경쟁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 도, LX와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 구축

### 설계보상·시공 디지털 통합관리 지역중점도·드론 활용 오류 예방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국도정보공사(LX)와 함께 도로사업의 설계부터 보상,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LX 전북지역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오류와 사업 지연, 오·다공사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계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 시 추진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설계 초기부터 실

제 지적측량 성과를 반영한 지적중점도를 구축해 설계와 보상, 시공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적현황측량과 분할측량, 드론영상 기반 현황조사, 지적확정측량 등 도로사업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해져 오·다공을 예방하고 보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국·도도와 지방도 사업 전담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수 LX 전북지역본부장은 "LX의 지적·공간정보 기술력을 활용해 신속한 토지보상과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과 인재교류 확대

### 우즈벡 공무원연수단 도청 방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 공유 생성형 AI 행정혁신 사례도 소개

전북도가 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3명이 도청을 찾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과 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지방행정 우수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연수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

답을 진행했다.

도는 입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체계를 소개하며 지역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을 공유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한 우수 인재 유치 기반을 소개했다.

연수단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와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AI 행정 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문서 작성과 정책자료 검색·분석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도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행정혁신 사례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과 디지털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한병도 "시간 끌기 땀 원구성 강행하겠다"

### 원구성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민생 시급...선관위 문제도 있어" 다음주까지 협상 마무리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을 구성하는 데 54일이 걸릴 일"이라며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원구성을)과거 관행처럼 여야 협상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쟁점이 생기면 시간 끌기를 하는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관위 문제처럼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54일동안 협상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하면 안된다"며 협상이 지연될 경우 여당이 원구성을 강행하겠



한병도 원내대표

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물론 한 원내대표는 "협상은 충분히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시간 끌기로 나오면 3기 원내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깨서 다음주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같은 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면서 "상임위(위원장 배분 및 배정) 문제도 바로 시작된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하면서 차분히 (원구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 돌입

### 취약층 지원·학교운영비 추경 심사 교육청 본청 예산 1314억 증액 편성 진형서 '한정 자원 효율성 높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서)는 11일 제428회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본청은 1,314억 원(3.9%)이 증액된 3조 4,903억 원, 직속기관은 6억 원(1.4%)이 증액된 475억 원, 교육지원청은 1,299억 원(12.5%)이 증액된 1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따른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지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확대 △본예산 편성

후 추가발생된 의무적 경비(인건비 등) 확보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형서 위원장(전주2)은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고물가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이번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한정된 교육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번 제4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도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 우리 함께 해요!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 no! 장바구니 ok!**

**세탁비닐 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 완산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 안전 확보·교통질서 확립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주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단속에 나선다. 완산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서부신시가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등 어린이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 기간 중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도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7516건)와 교차로 모퉁이(59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출범

### 청소년 선도·보호 의견 제시 경찰 정책 반영 추진

전북도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보호 위한 청소년 정책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조영일 서장은 지난 10일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하며 오레엔터테인먼트를 실시했다. 조영일 서장은 이날 “도내 청소년들의 ‘선도·보호 목소리’는 현장의 소리로서 이에 따른 눈높이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이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의한 청소년 위

책자문단’은 도내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해 경찰은 제시된 청소년 정책자문단 의견을 모아 정책 반영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모집은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선발됐다. 이를 통해 전주덕진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전주중학교 등 총 20명 학생들로 구성됐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원 의견을 현실적합성 용성 정책 추진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AI·로봇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

## 건설 산업 AI·로봇화 전환 선도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협약

전주시가 AI건설과 로봇 중심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를 비롯한 5개 건설관련 협회와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전북대학교 부지 내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가는 등 건설 산업의 AI시대 대전환을 위한 ‘AI건설·로봇 중



시는 11일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심의의 스마트건설 생태계조성에 적극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

개선 등의 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는 혁신센터의 설립을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건설산업의 AI와 로봇화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날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할을 모아 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소민 기자

## 위생·복지 분야 종합대책 가동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추진

완산구가 여름철 구민 안전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이에 완산구는 오는 9월까지 도로와 습터 등 공공시설물과 위생·복지 분야를

## 완산구 여름철 폭염대응대책 운영

아우르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종합대책으로는 △주요 도로 33개 노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살수차 6대 동원한 ‘도로 쿨서비스’ 추진 △그늘막 239곳 운영 등이다. 아울러 △경로당 138개소 △노인복지

관 5개소 △공공시설 49개소 등 총 194개소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백로공원 등 총 18개 공원에서 분수대 및 수경시설도 가동된다. 동시에 구는 여름철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도 추진한다. 여기에 구는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

소 예방 점검을 추진하고, 횡집, 냉면·소바 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완산구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구민 여름더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김영태 기자

# ‘제8회 아프리카영화제’ 전주서 개막

##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최

‘제8회 아프리카영화제(8th Africa Film Festival)’가 11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막식을 올렸다. 이번 영화제는 전주시와 한·아프리카 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이날 주한 르완다 대사과 한·아프리카 재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진행했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달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막한 뒤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를 거쳐 전주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



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

리카 영화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제는 음악과 도시, 정춘, 가족, 정치와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상영되며 아프리카 사회의 생생한 현재와 문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 상영에서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Killer Music)’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Mighty Popo)가 내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그는 캐나다의 권위 있는 음악 상인 주노 어워드(Juno Awards) 수상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영화에서 각본과 제작, 음악 작업을 직접 맡아 르완다의 전통음악과 공동체의 기억을 깊이 있게 담았다. 12일에는 영화 상영 후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가(How Does Music Tell the Story of a Nation?)’를 주제로 마이티 포포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특별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시민과 관객들이 아프리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영화 ‘카타: 전갈들의 춤’ 상영 후 ‘맥베스는 왜 아프리카로 향했는가’를 주제로 조원희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된다. 영화제 관람은 구글폼 온라인 사전 신청(rl.kr/ckkbD)과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평생학습관·수소놀이체험관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는 11일 각각 전주시평생학습관 현장 점검과 교동의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현장을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평생학습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용철 위원장은 “평생학습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보편적 교육 복지의 핵심”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소민 기자

같은날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체험관 건립 개요 및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둘러보며 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혜숙 위원장은 “수소놀이체험관은 전주시가 선도하고 있는 탄소·수소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시민과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피해액(천원)
		계	사망	부상	
합계	34	8	0	8	776,218
2025	4	1	-	1	28,090
2024	6	5	-	5	47,383
2023	10	-	-	-	257,662
2022	10	-	-	-	152,560
2021	4	2	-	2	290,523

• 인명피해(8명)  
 - 25. 6. 6.(1명) : 정읍 ○○○○○○센터(폐기물처리시설) 퇴비 축적 자면발화로 2도 화상  
 - 24. 5. 2.(5명) : 전주 ○○○○○터(폐기물처리시설) 가스폭발 화재로 전원 전신 2도 화상  
 - 21. 4. 2.(2명) : 군산 ○○○환경산업(폐기물처리업체) 화재전달 승 승선 2도 화상

## 전북소방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 추진

최근 5년간 화재 34건·부상 8명”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도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614개소, 폐기물 처분시설 75개소, 폐기물 감량화시설 10개소 등 총 69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최근 10년간 동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포함한 시설이 다량 적재돼 있고 소각시설 등을 운영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장시간 화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특히 폐기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돼 자연발화로 이어질 경우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각별한 예방관리가 요구된다.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총 3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다치고 약 7억7천만 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

다”고 밝혔다. 대책은 도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614개소, 폐기물 처분시설 75개소, 폐기물 감량화시설 10개소 등 총 69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최근 10년간 동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포함한 시설이 다량 적재돼 있고 소각시설 등을 운영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장시간 화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특히 폐기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돼 자연발화로 이어질 경우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각별한 예방관리가 요구된다.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총 3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다치고 약 7억7천만 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

## 전북환경청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사·단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해 8월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사·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순찰 강화 및 집중 단속 △사업장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6월) 기간에는 사업장이 배출·방출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확대 등 환경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7월~8월) 기간에는 주요 산업단지과 상수원 주변지역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및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과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야영장·캠핑장 등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단계(상시)에는 소규모 영세·반복 위반 등 환경관리 취약사업장과 집중호우로 침수·파손되어 시설 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순찰일원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북경찰청이 도내 여성폭력 근절에 유관기관 합동 예방 홍보를 펼쳤다. 11일 유관기관 합동 점검은 최근 불법촬영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및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과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야영장·캠핑장 등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경찰청 △순찰경찰서 △1366전북센터 △순찰관 가족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8개 20명 관계자가 참여했다. 기관 관계자들은 순찰 일원을 돌며 마가정폭력 △노인학대 △스토킹 등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안내 홍보물 등을 전달했다. 특히 경찰·여성단체와 협업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설치 여부 등을 순찰관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AI·데이터 협력 생태계 강화

## 전북 인공지능 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 성료... 네트워크 강화

전북TP 부설기관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제76차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확산 △지역 디지털 전환 촉진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높은 고나심이 뒤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 디지털전환 정보교류시스템 '공모모아', '기업모아' 서비스가 소개됐다. 또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 지원사업 안내, 가명정보 활용 및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AI에 이온트 개발 동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년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가명처리 및 합성데이터 구축 방법·제도적 요건과 기술적 절차 및 사례가 공유됐다. 더불어 행사장 내 운영된 가명정보 처리 및 합성데이터 기술 홍보 부스에서는 최신 데이터 활용 기술과 가명정보 활용 정보 활용 및 합성데이터 생성 사업에 대한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는 종합 컨설팅,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도입 등 정보보호 지원 및 정보보호 수준 제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평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주제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지방우정청>

## 전북우정청, 부안 지질명소 기념우표 발행

### 예약판매 시작

전북지방우정청이 부안 지질명소를 소재로 한 특별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은 부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지질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해 관리하는 특별한 구역이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정식 수록돼 있다. 기념우표에는 △적벽강 △채석강 △솔섬 △직소폭포 등을 부안을 대표하는 세계지질공원 명소 모습을 담아 제작됐다. 예약 접수는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한편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post.go.kr/jb/579) 또는 부안우체국을 통하여 가능하다. 구분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전북지방우정청은 앞으로도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우표에 담아 지역사회 홍보와 우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큰 성과

## '통일형 벼품종' 15개국·71품종 개발

농촌진흥청 카파시(KAFACI)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15개국에 총 71개의 벼품종을 개발·등록했다.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23개국에 벼 육종가 44명을 양성하는 등 '쌀 자급자족'의 발판과 '녹색혁명의 길'을 열어주는 큰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2016~2025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쌀은 아프리카에서 옥수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 39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벼 품종은 수확량이 적고 병해충에 약하며, 벼 재배기술과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해 아프리카 벼 생산성(2.4톤/ha)은 아시아 벼 생산성(5.0톤/h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매년 쌀 수요가 6% 이상 증가하고 있어 39개국 중 21개국이 소비량의 5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시작된 것이 농촌진흥청 카파시(KAFACI)의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벼 품종들은 지난 10년간 15개국에 총 71개다. 벼 품종 개발에는 육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육종기술인 '약배양(꽃가루배양)' 기술과 '통일형 벼품종' 등 한국의 고품질 다수확 벼품종이 활용됐다. 사업을 통해 통일형 벼 기반의 다수확 품종들이 속속 개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3년부터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농업관계관



<사진=농진청>

등과 협력해 우량종자 생산, 재배기술 전수,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각국의 자립적 종자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321톤을 시작으로 2024년 3,562톤, 2025년 6,365톤의 벼종자를 생산하는 등 매년 우량종자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매년 벼 우량종자 1만여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주로 관개답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량성 높고 밥맛 좋은 품종 개발이 주를 이뤘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가뭄·병해·염해 등 재배환경이 열악한 전수답과 밭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바이오진흥원, 친환경 푸드 포장 푸드테크 홍보

## 기술 및 연구 성과 전시

전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월드푸드테크2026 컨퍼런스(World FoodTech 2026 ConfEx)'에서 친환경식품포장 세션을 개최하고 전북푸드테크 홍보관을 운영했다.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시, 컨퍼런스, Prize 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으로 진행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친환경식품포장 세션 개최를 통해 전북 중심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또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과 친환경포장기술의 산업적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친환경식품포장

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세션 개최에 협력했다. 푸드테크 홍보관은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정책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패키징센터 연계 친환경포장 제품 전시·홍보가 이뤄졌고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주)누리팜 △더울은협동조합 △(주)딜라이트푸드 △농업회사법인(주)수지스링크 △메디솔라(주)의 대체식품 및 질량계어식품 분야의 우수 기술과 연구성과를 전시·홍보해 푸드테크 기관·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성을 널리 알리고 기술 인지도 제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난 10일 개최된 '친환경식품 포장 세션'은 바이오진흥원 강현수 본부장을 좌장으로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의 이해와 기업 대응 △국



<사진=바이오진흥원>

내 친환경 식품 포장재의 기술개발 트렌드 △식품기업의 친환경 포장 제품 제작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교육은 2개 파트로 진행됐다. 첫 번째 '창업 기업 사업과 전략과 성장 방향' 주제로 한국지역경제진흥원의 김익태 수석 강의로 진행됐다. 두 번째 '시제품 제작기업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전략'에서는 제로투원파트너스 최보라 부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창업기업 투자 트렌드와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기업 성장 단계별 대응 방안과 투자유치 준비 사항을 소개했다. /정소민 기자

포장 상용화의 기술·규제·시장 장벽과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며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은 11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플렉스 BI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중기청>

## 전북중기청, BI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 입주기업 안정적 성장 및 사업 지원방안 논의

전북중기청은 11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플렉스 BI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입주기업 안정적인 성장 및 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장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와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공유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기업성장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입주기업이 사업화 과정에 겪는 △판로개척 △자금확보 △인력채용 △시설활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성장단계와 맞는 지원사업 연계와 후속 상담·멘토링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중기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와 협력해 지원 가능 사항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김정태 전주상의회장, 지역청년인재발굴 '앞장'

전주상의가 지역청년 취업경쟁력 향상 위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며 기업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지역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직무경험에 따른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게는 미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202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의 이번 모집은 노동시장 환경에 맞맞춰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청년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참여를 통해 향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기업은 인턴십 기간 동안 청년들의 직무 적성도를 면밀히 검증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는 물론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실무 경험과 함께 주 25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 375,000원 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기업에게는 기업지원금과 멘토수당이 지급된다. /김영태 기자

## 경진원, 시제품 제작 교육 프로그램 성료

###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11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개 파트로 진행됐다. 첫 번째 '창업 기업 사업과 전략과 성장 방향' 주제로 한국지역경제진흥원의 김익태 수석 강의로 진행됐다. 두 번째 '시제품 제작기업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전략'에서는 제로투원파트너스 최보라 부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창업기업 투자 트렌드와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기업 성장 단계별 대응 방안과 투자유치 준비 사항을 소개했다. /정소민 기자

특히 각 파트별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여기업들이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누며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운영부 원장은 "이번 교육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제품 완성도와 사업화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앞으로도 전북 도내 창업기업과 시제품 제작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 강화, 투자유치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혁신도시 상생 대상' 수상

### 혁신도시 공공기관 96개사 중 지역발전 기여도 1위

'2026년 혁신도시 상생 평가'에 국민연금공단이 '혁신도시 상생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혁신도시 상생 평가는 혁신도시 시정책임연구원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회가 주관했다.상생평가는 공공기관 95곳과 배후 광역·기초 지방정부 20곳을 대상으로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 다차원 혼합평가 방식을 적용 △성장지수(200점) △활력 지수(300점) △협력 지수(500점)를 산출해 측정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생·협력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인재 육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지속적 상생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10년간의 상생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지속 협력해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 추진

## 국토부 등 4개 기관과 스마트건설 생태계 확장 및 인재 양성 협력

전북대학교는 11일 교내 대학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과 생산성 저하 등 기존 건설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반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5개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혁신센터 부지와 공간을 제공하고, 건설 AI 및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전담 운영하며 입주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는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연구개발(R&D)과 투자 유치 업무를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해 지역 기반의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동참한다.

협약식 직후 참석자들은 교내 피지컬 AI 실증랩을 참관했다.

전북대는 이를 기점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건설 현장의 자동화·지능화 기술 개발에 연계하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융합형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AI와 로봇 기술은 기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스마트건설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배트민턴 영웅 정소영, 체육 소장품 기증

메달·사진 등 53점 전달

세계 배드민턴 전설 정소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정소영 영웅이 전북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값진 소장품을 전달했다. 그가 기증한 소장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입상 메달, 기념품, 사진 등 약 53점에 달한다.

도체육회는 흔쾌히 값진 소장품을 내준 정소영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다.

김제가 고향인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19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금메달,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동메달, 전영오픈 우승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쓸어담았다.

지난 2003년에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배드민턴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성심여고 배드민턴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성심여고를 배드민턴 명가로 우뚝 세웠고, 전북 배드민턴 부흥을 이끌고 있다.

정소영 영웅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많은 체육 후배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소장품을 기증하게 됐다"며 "체육역사기념관이 조성 돼 전북 체육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총 "선관위, 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진상 밝혀야"

## 누락·중복 입력 사태 진상 규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지난 3일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결과 누락 및 중복 입력 사태에 대해 선거

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11일 촉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개표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전산에서 누락되고, 제3투표소 유권자 994명의 결과가 중복으로 반영됐다.

전북교총은 이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최종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 부실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를 향해 △개표 입력 오류의 정확한 경위 및 책임 소재 공개 △오류 발생 단계별 구체적 설명 △유사 오류 재발 방지 시스템 개선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유권자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오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도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남원 국제검도대회 및 조병용 선생 추모 대회' 개막

전세계 검도인들의 축제인 '2026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 및 제34회 조병용선생 추모 검도대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가 주최, 남원시검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의 5개국 선수단을 비롯해 국내외 총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대한민국 검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남원 출신 고(故)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 시작해 지난 2015년부터

해외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성장해왔다.

경기는 오늘 해외 선수단 환영행사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3일 개회식과 개인전, 14일 단체전으로 진행 된다.

전국 각지의 검도인들은 물론 해외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와 함께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검도의 진수와 품격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제30회 정읍예술제' 13~19일 열려

## 시민들에 문화예술 경험 제공... 공연·행사 '풍성'

정읍시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인 '제30회 정읍예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예술회관 일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꾸러진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지회장 최창수)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13일 정읍시예술회관 주차장 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공예 체험 공간(부스)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머그잔 만들기를 비롯해 열쇠고리(키링) 제작, 물레 체험 등을



<사진=정읍시>

직접 즐길 수 있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식전 공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악, 무용, 음악, 연예예술인협회가 참여하는 연합 공연이 무대를 채운다.

오후 7시에는 지역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뽐내는 '제10회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이 열려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전국 규모의 행사가 함께 열려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1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는 대한무용협회 정읍지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정읍 전국 단품무용경연대회'가 열려 전국의 무용인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날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 주관으로 '제20회 상춘곡문학제'와 '제11회 상춘곡 낭송대회'가 개최돼 문학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전북스포츠클럽, 역대 최고 성적 기록

## 체육 양성소 자리매김

전북공공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일 전북스포츠클럽에 따르면 클럽 소속 또는 출신 롤러 선수들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롤러 여자중등부 500m에 출전한 김하연(전주중)은 전북 롤러 선수단에 20여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선물했다.

또 장서은(전주중)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00m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하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이처럼 기량을 뽐내고 있는 김하연과 장서은은 전북스포츠클럽 출신이다.



<사진=전북체육회>

또 이철우(전주 화정중)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수확하며 멀티 메달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이처럼 전국대회에서 맹활약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박준범(전주 자연초)이 유소년 국가대표로 당당히 발탁됐다.

박준범은 실내 인라인 트레드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2026 타이안 국제 롤러스케이팅 오픈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 할 예정이다.

전북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며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도교육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K-water 사장배 조정대회' 군산서 개최

대한조정협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금강 하구둑 나포 조정경기장에서 제23회 K-water 사장배 불사람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조정협회와 K-water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조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등 총 42개 팀 45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7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중등부 10,000m, 고등부-대학부-일반부 2,000m로 에이트(8인), 쿼드러플스킬, 무타포어(4인), 더블스킬, 경량급 더블스킬, 무타포어(2인), 싱글스킬, 경량급싱글스킬(1인) 총 8개 종목이 진행된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은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속속 군산을 찾

고 있으며,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 가족과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군산시청 조정팀에서는 박재언, 안예선 선수가 출전해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킬, 경량급싱글스킬, 더블스킬 등 3개 종목에 출전한다. /군산=임근서 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 제14회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자연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응원합니다

- **참가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내용
- **공모 부문** 그림 & 만화
- **작품크기** 8절지 크기 (B4 용지)
- **공모기간** 2026년 6월 8일 ~ 2026년 7월 9일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지** 우) 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5층
- **수상지 발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 **수상지 시상** 2026년 9월 4일 (금요일)

- **대상 3명** 전북도 교육감상(1명) 전북도의회장상(1명) 전북도지사상 (1명)
- **최우수상 4명** 전주시정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 **우수상 20명 (제)** 아시아문화 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20명)
- **장려상 50명 (주)** 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50명)
- **특별상 3명** 국회의원 (3명)

주최, 주관 - 제)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

### 군산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실시

군산시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도입과 활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는 공공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는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문서 초안 작성, 보고서 및 회의자료 요약, 질의응답 정보 검색,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업무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령, 규정, 업무 매뉴얼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AI플랫폼 서비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중 2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6월에는 읍면동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비스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제 업무 현장에 적합한 활용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재해위험지역 집중 점검

### “시민 안전 최우선” 집중호우 선제 대응... 안전도시 구축 박차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11일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 현장과 금봉·동곡 재해 위험 지구를 찾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다가오는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재해 예방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피고 공사장 내 위험 요소를 직접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먼저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 현장을 찾아 장마철 대비 안전 대책을 확인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나 낙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 빠짐 시설과 비탈면 보호 장치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공사장 주변 안전 시설물도 함께 점검해 주민 안전을 굳건히 다질 것을 주문



<사진=정읍시>

했다. 이어 금봉·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이동해 하천 정비와 다리 재가설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이 잘 빠지도록 기능을 꼼꼼히 챙기고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 주요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현장 작업자들의 건강 관리 상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피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 예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며 “민선 8기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행정을 다가올 민선 9기에도 이어나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시, 내달 4일 전통 오방색 품은 ‘컬러링 비빔발레’ 공연

정읍시가 내달 4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작인 전북발레시어터의 ‘컬러링(Coloring) 비빔발레’ 공연을 두 차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컬러링(Coloring) 비빔발레’는 전통 음식 비빔밥이 가진 오방색을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특히 발레리나를 꿈꾸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해설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 전개(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누구나 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여기에 클래식과 현대 발레를 자연스럽게 엮어 교육적인 측면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국립발레단의 김명규, 민소영을 비롯해 윤별발레컴퍼니의 이은수, 정혜윤 등 국내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본 무대는 내달 4일 오후 2시와 5시에 열린다. 관람권 예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전통 오방색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시민들께 선보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께 나누고 예술로 소통하는 즐거운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2027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군산시는 내달 2일까지 2027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이 영농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2027년도 해당 사업 신청 희망자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편입일로부터 현역 임명 대상자는 3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이며, 복무 기간 동안 본인의 영농 사업장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영농 쓰레기’ 짝 치웠다

### 농경지 상습 침수 우려 지역 중심 정비

익산시가 올여름 기습적인 집중호우를 앞두고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와 시설하수 주변에 방치된 수십 톤의 영농 쓰레기를 걷어내는 대대적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기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11일 망성면 화산리 일원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70여 명과 함께 ‘농경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장마와 폭우 시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인 폐비닐, 부러진 파이프 등 영농폐기물과 각종 적치물을 사전에 완벽히 정비해 재해 위험 요인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시 바이오농정국 5개 부서는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화산지구 일대를 살살이 뒤지는 전수조사를 감행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 사각지대 총 123개 지점에서 61.4톤에 달하는 방치 적치물을 확인했다.

이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운반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공조를 마쳤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사업인 ‘우리동네 새단장’과 연계해 추진돼 관공서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탈피하고 지역 사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롤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시지부,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망성면 주민 및 시설농가 관계자가 대거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배

수로와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폐자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농가들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리는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쳤다.

시는 이번 집중 수거를 기점으로 영농 폐기물 무단 투기나 불법 소각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적정 처리하는 자발적 환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습 폭우라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능동 대응보다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기 전 배수로의 숨통을 틔우는 이번 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

### 정읍시가족센터 에너지 성능 개선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낡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노후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지원하는 ‘군집형 사업’ 부문에 지원해 정읍시가족센터 1동과 2동이 대상지로 뽑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14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5억 3000만원 등 총 21억원 규모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시공, 냉난방 기기 교체 등이 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함께 설치한다. 이번 사업 대상

지인 정읍시가족센터는 지난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간판을 바꿨다.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공간이 탄소 절감형 건축물의 대표 사례이자 친환경 보수 사업의 지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보급

### 생산비 절감 기대

익산시가 벼농사 생산비 절감과 농번기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재배면적을 늘려,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 1만 5,300ha 중 약 90%인 1만 3,770ha에 적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드문모심기는 기존보다 모 간격을 넓히고 포기 수를 줄여 심는 재배 방식이다.

육묘상자 사용량이 줄어 종자와 상토 비용이 아낄 수 있고, 육묘 관리와 이앙 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작업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벼 포기 간격이 넓어지면서 햇빛 투과와 통풍이 원활해져 병해 발생을 줄이고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포기당 이삭 수와 낱알 수가 늘어나 수확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드문모심기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실용

적인 재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드문모심기를 적용할 경우 10a당 약 6만 3,500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익산시 적용 면적에 환산하면 연간 약 87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드문모심기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 마한박물관서 즐기는 문화체험”

24일 문화가 있는날 ‘마크라메 공예’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침표를 더할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마한박물관에서 오는 24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마크라메 도어벨 만들기’ 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손으로 실을 엮어 다양한 매듭을 만드는 마크라메 공예를 활용해 생활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이다.

시민들이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마한박물관 교육체험실에서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재료비 등 자세한 사항은 마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한박물관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크라메 공예 체험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시>

### 군산시 ‘2026 K-소통 프로그램’ 추진

군산시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K-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이 군산에서 생활하며 겪는 언어·교통·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온·오프라인 필기 교육 △교류·체험행사로 구성된다.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온·오프라인 필기 교육은 개인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일부 비자 전환 시 가점 요건 충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교류·체험행사’는 외국인주민 간 교류와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추진된다. 소방·재난 안전체험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K-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생활역량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이 지역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29일까지 정신건강 캠페인 전개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마련했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오늘도 잠 못 드는 당신에게’를 주제로 시민 참여형 정신건강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와 열대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수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면장애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집중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센터는 수면장애의 증상과 원인, 건강한 수면 습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쿼인(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익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정읍시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지역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2026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 역자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같은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이에 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돕고자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인 지원은 청년이 처한 채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때 필요한 초기 납입금을 지원하거나, 새롭게 도입한 성실 상환자 조기 상환 자금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2관 2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tpdud3557@korea.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빛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 온 청년들을 위한 조기 상환 지원까지 신설하고 거주요건도 완화한 만큼, 많은 지역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김제시, 지방소멸 위기 대응 2(題)

## “달리는 모두배움터” 추진

김제시는 2026년에도 전국 유일의 체험형 이동학습 공간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형 평생학습 공간을 읍·면 지역에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제약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됐던 농촌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8만인 소도시인 김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를 넘어선 가운데, 그간 읍·면 주민들은 시내까지 나와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평생교육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달리는 모두배움터’를 통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돼 버스 한 대로 지역소멸의 시계(時計)를 거꾸로 돌리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단순히 버스 하나가 달린 것이 아니라 교육을 대하는 도시의 태도와 시선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은 단순한 ‘찾아가는 강의’와는 다르다. 버스 내부를 교육 목적에 맞게 전면 개조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취선)한나무 소주의 버스 인프라를 공유·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 운영은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지역 평생교육강사들이 말야 문화·예술·디지털·건강 등 생활 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50개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달리는 모두배움터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평생학습으로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김제형 모델”이라며 “주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김제시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정착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및 관내 5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김제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 2억 5백만 원(김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광대 연계사업비 1억 5백)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외국인유학생 유치, 직무기술 및 한국어교육, 취업연계, 지역특화비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가 핵심이다.

특히, 교육부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의 우수한 유학생 인프라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의 직무교육 역량을 결합해 식품 생산관리, 용접, 지게차 등 기업맞춤형 기술교육과 정(김제취업캠프)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관내 우수 기업인 △(주)푸드웨어 △(주)참고을 △(주)한국물드김제 △삼진산업(주) △공덕농협농산물가공사업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참여한다.

시는 이번 관계자회의에서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참여 대학 및 유관기관, 관내 기업들과의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취업캠프 운영 및 취업 매칭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사업은 특장차 및 식품 제조업 등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김제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장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본시업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갯벌 시니어교실’ 운영

참가 마을·기관 모집

고창군이 고창갯벌의 가치를 지역 어르신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2026 찾아가는 고창갯벌 시니어교실’ 참가 마을·기관을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 찾아가는 고창갯벌 시니어교실’은 ‘2026년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의 세부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니어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신청 마을회관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고창갯벌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몸을 깨우는 갯벌 건강체조(심박 인지체조) 등 △고창갯벌의 가치 교육 △고창갯벌 새파리 만들기 △갯벌의 향기와 릴렉스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8회 운영되며, 모집 대상은 고창군 관내 마을 또는 시니어 기관 8개소이다. 회당 20명 내외의 어르신이 참



<사진=고창군>

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15일부터 홍보포스터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어르신들이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전의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졸포면, 영농철 맞아 오디 수확 농촌일손돕기

부안군 졸포면(면장 최남권)은 지난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관내 오디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졸포면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디 수확에 손을 보태며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또한, 작업 후에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민들과 소통하며 농촌의 현실을 몸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해 농가는 “바쁜 공무 중에도 자기 일처럼 열성적으로 도와준 직원들 덕분에 적기에 수확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봉열 산업팀장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졸포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마을 곳곳 누비는 ‘고창동네점빵’ 인기만점

고창군이 지역 농촌마을을 누비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마트인 ‘고창동네점빵’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동네점빵은 지난 4월 6일 첫 운영 이후 2개월여간 180여개 마을을 찾아 19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식품사막화를 막는 오아시스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동네점빵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판매 서비스다. 읍내 중심가에 상설매장이 있고, 이동형 트럭 2대에 각각 화장지·주방용품, 과자 등 생필품과 계란·두부·콩나물 등 신선·냉동식품을 싣고 각 마을을 돌아다닌다.

인구 5만명 남짓한 고창군은 전체인구의 41.4%(2만774명)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고령 농어촌도시다. 특히 읍내가 아니고서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없어 기본적인 식품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10일 동네점빵이 찾은 고창군 성내면의 한 어르신은 “마을버스를 타면 차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짐도 무거웠는데 이렇게 집 앞에서 화장지와 세제 등을 살 수 있어 편하고 좋다”고 웃음지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고창동네점빵은 단순한 이동판매를 넘어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성덕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덕면 등록관리위원회는 문순 위원장을 비롯한 법석리별 마을 대표 위원 등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사항에 대한 적격 및 실경자 여부를 심사했다.

심의 결과, 올해 성덕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관내·외 농업인 506명 및 농지 1,132ha가 의결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하는 한편,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순 성덕면장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덕면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직불제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수박’ 2026년 첫 출하

## 대성농협서 공식 출하식 전국 소비자 입맛 공략

전국 최고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며 여름철 대표 과일로 손꼽히는 ‘고창수박’이 2026년 첫 출하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국 유통망 공략에 나섰다.

고창군이 11일 대성농협(조합장 박윤규)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수박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창 명품수박 첫 출하식’을 열었다.

올해 고창수박은 대성농협 명품수박 공선출하회에서 연간 20만 덩이, 선운

산농협 공선출하회 연간 31만 덩이 등 약 총 51만 덩이가 출하될 예정이다.

고창수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제(GI) 116호로 공식등록돼 지역고유의 자연환경과 재배 전통에 기반한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지리적표시제 고창 명품수박은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청정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독보적인 당도를 자랑한다. 특히 농가들의 숙련된 재배 노하우에 농협의 체계적인 품질 관

리가 더해져 매년 프리미엄 수박 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첫선을 보인 고창수박은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를 비롯해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으로 공급돼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수박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준비 만전

##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김제시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11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허성수 김제경찰서장, 이종욱 김제소방서장 및 시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초여름 무더위 속에 치러지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인 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단은 전반적인 축제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무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람객 이동 동선, 교통 대책, 안전사고 예방 대책, 위생 관리 현황 등을 총총하게 살폈다.

특히 시는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 과제인 공연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확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시중독 예방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한 방역 조치 등을 점검 행사장 준비

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을 비롯한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기합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악산의 푸른 녹음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뮤직페스티벌이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건물 번호판 QR코드 부착 교체

## 청자 문양 디자인... 길찾기 편의 향상 기대

부안군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QR코드 및 부안을 상징하는 청자 문양을 디자인에 적용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함께 부착돼 스마트폰으로 스캔시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위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고 택배, 배달 서비스 및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명확히 표시해 주는 핵심 주소정보시설이다. 특히 화재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돕고, 일상적인 우편·택배 배송 및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 시설물이다.

이번 무상 교체 사업은 장기간 햇빛

과 비바람에 노출돼 심하게 훼손되거나 망실 등으로 인해 주소 식별이 불가능해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체된다.

올해는 부안읍, 변산면, 백산면 등을 대상으로 약 2,130개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계획이다.

부안군 민원과장은 “건물번호판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정보 시설로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과 군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모집

김제시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원 3명을 공개 채용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체납처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체납관리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하서면 ‘취약계층 반찬릴레이’ 시작

부안군 하서면 문화센터 내 생생마을관리소가 11일 하서면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사회서비스 돌봄 확산을 위한 ‘반찬릴레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하서면 문화센터 내 생생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하서봉사회가 직접 참여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부안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 및 돌봄봉사자들이 배달을 도와주며,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함께 젓갈 반찬을 지원해 하서면 내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반찬을 전달하게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식품산업연구-임지식품, 케어푸드 개발 착수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주)임지식품(대표 정백산)과 고창 지역특화자원인 복분자를 활용한 케어푸드 제품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지역특화자원 연계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양 기관은 고창 복분자 미숙과를 활용해 혈당 조절과 근기능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고단백·저당 케어푸드 제품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당대사 관리와 근육 건강을 함께 고려한 간식식을 개발해 고령층 및 당뇨병 고위험군을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복분자 미숙

과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포기반 효능 평가를 통해 혈당 조절 및 근육 관련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참여기업인 (주)임지식품은 자사의 냉동 가공편식 제품개발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고령층 및 건강관리 수요층의 기호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화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생기 원장은 “고창 복분자 미숙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식생활에 적용 가능한 케어푸드 제품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라며 “지역특화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추진 '탄력'

하반기 착공... 하루 120톤 우분처리  
규제특례 2년 연장 사업 동력 확보  
총사업비 318억 투입 2029년 준공

완주군이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는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오는 11월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북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 승인을 받으면서 한층 더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친환경 연료화시설은 총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행주체는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

2029년 6월 준공 및 시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한 후 11월 중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연료화시설은 하루 120톤 규모의 우분을 수거해 고체연료 약 80톤 정도를 생산하게 된다. 완주군 가축 사육의 중심지인 화산면 가축분뇨 처리대상 물량을 적정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질적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근 마을과의 갈등 조율을 위해 '친환경 연료화사업 지속발전 협의회'를 구성

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2024년부터 수질, 토양, 부원마을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김제 실증시설 견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2025년 9월 19일 주민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체결된 주민협약에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규모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주민 지원사업 실시, △인근 지역 도로개선 추진, △철저한 악취개선 노력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군은 협약 체결 이후에도 갈등 관리와 상생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전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규제특례 실증 연장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철저한 실시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11월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양충모 당선인 "남원시 K-컬처 중심도시로 육성"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청취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방향 제시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10일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K-컬처 중심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양충모 당선인을 비롯해 최용택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공약 연계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비롯해 △남원 K-컬처 스포츠 조성사업 △울진골목에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계곡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춘향제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재학당 운영 △미래인재 육성사업 △유소년스포츠클럽 육성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남원시>

양충모 당선인은 "남원은 춘향과 판소리, 광한루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며 "이러한 전통문화 자산에 현대적 콘텐츠를 접목해 K-컬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은 남원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문화예술

과 관광, 축제, 스포츠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특위 2년 활동 '마침표'

공식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통합 추진 중단 선언 성과"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특위)가 11일 열린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 2024년 6월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이후 완주군의자치권과 군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특위는 지난 2년간의 활동 성과와 성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와 14차례의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익산·청주·장원·제주 등 행정구역 통합 사례가 있는 4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통합 전후의 장단점을 심층 조사·분석했다.

대의 행보도 활발히 이어갔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11개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완주군민의 확고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통합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군민과의 직접 소통에 집중했다. 2024년 7월 삼례읍을 시작으로 고산·용진·봉동·이서 등에서 통합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2025년에는 13

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군민들에게 통합 논의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주요 성과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명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논거 확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대상 건의 활동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군주의 독자적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꼽았다.

서남용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내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물놀이 사고 막는다...안전 협력체계 강화

순창군은 1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1차 수상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상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 부서와 읍·면 담당자,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순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관내 하천 물놀이 지역과 저수지, 야영장, 유원시설 등 총 218개소의 수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구조·구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순창군은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지역 17개소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요

원의 근무기간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적 사용과 근무지 이탈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읍·면사무소와 군 총괄부서의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동계면 장군목과 유등면 심전강체육공원 등 고위험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군은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순찰 노선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자원순환 거점 '다회용기 세척장' 가동

3억8천 투입 노인일자리 연계  
시범운영 거쳐 9월 상용화

순창군이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회용기 세척장'이 7월 중 문을 연다.

군은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순창읍 구 순창읍할머니경로당(129.16㎡)을 다회용기 전문 세척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다회용기 세척장은 준공 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의 '청춘드림워싱' 공동체사업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철저한 시범운영을 통해 작업공정 숙련 및 시설장비를 점검 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척장이 본격 가동되면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물론 공공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 식기류 보급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기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 전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며, 향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할인율을 점차 확대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생 문제도 철저히 관리된다. 세척 공정은 △애벌 세척 △불림 △자동 세척 △살균 소독 △건조 △검사 등 총 6단계의 엄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주기적인 오염도(ATP) 측정을 통해 일회용품보다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을 통해 순창군민의 친환경 자원순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고산도서관, 다문화 체험 '다가치 여행' 참가 원아 모집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30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多)가치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최근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다(多)가치 여행'은 일본과 중국을 주제로 한 세계시인 성장 프로그램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독서 활동을 비롯해 전통 의상 입어보기, 전통 놀이, 화과자·월병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풍구장터' 13일 개최

순창군 풍산면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대표 구준화)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풍산면 산울림센터 일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제2회 풍구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순창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공동체 30개소가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썩지않는 내동마을의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코너를 마련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판매 품목으로는 썩지않는 양배추를 비롯해 햇감, 블루베리, 토마토, 유기농 썩치소 등 신선한 순창의 제철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딸기잼, 참기름 등 로컬 가공품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손수건 천연 염색, 민화 보자기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계 공연과 버스킹 무대가 함께 펼쳐져 장터의 흥을 한층 돋울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도 높였다. 장터 내 모든 상품은 농어촌 기본소득 QR코드와 순창사랑카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마리 방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남원을 대표하는 하천인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한 치어는 남원시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전장 3cm 이상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력해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치어이다.

쏘가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급 토종 어종으로, 수질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이다.

인기 때문에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던 쏘가리는 지속적인 치어 방류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북도 지역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어기이며, 18cm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 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해 수산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쏘가리 방류는 단순한 치어 공급을 넘어 건강한 생태계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수면 자원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2년 연속 장관상

보건복지부 운영성과대회서 수상  
지역기반 건강증진사업 성과 인정

완주군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서울 피스앤피크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사업 효과성,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전 평가 항목에서 우



<사진=완주군>

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2023년 개소 이후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사업과 다양한 건강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센터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98억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생활밀착형 편익사업 발굴 중점

완주군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이다.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군은 올해 공모 사업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총 98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단순 소규모 개발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편익사업의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유소년 드론 스피드 대회 14일 개막

남원시청 강당에서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2026 남원 유소년 스피드 드론 점령전'이 열린다.

남원시가 후원하고 관내 드론교육업체(하하메이커스)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들에게 실전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형 드론스포츠 활성화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에 모집된 관내 초등학교생 100여 명이 참가하며, 연령

과 숙련도에 따라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뉘어 미니레이싱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미니 레이싱 스피드 드론 기종을 사용해 경기장 내에 설치된 6개의 LED 게이트를 지정된 순서대로 정밀하게 통과하는 '타이어택'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행의 스피드와 정확성, 집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별 리그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드론교실 현장 체험부스'가 함께 열린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군 무장면, 경로위안 주민화합잔치 열려**

고창군 무장애향회(회장 이종호)가 11일 무장체육문화센터에서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제5회 무장면 경로위안 주민화합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향회가 마련했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무장면 기관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희망샘학교 학생 20여 명이 봉사에 참여해 삼계탕 500인분과 다과를 정성스럽게 차려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으며 문화 공연으로 흥을 돋우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이종호 애향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고, 어르신들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감곡면부녀회,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반찬 전달**

정읍시 감곡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직접 조리한 밑반찬을 전달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함께 벌였다.

감곡면 부녀회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반찬을 조리했다. 완성된 음식은 회원들이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해 건넸다. 이들은 음식을 전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졌다. 부녀회는 차량 2부제 동참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에너지 절감 실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생명 보호 활동도 병행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김정숙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생명 보호 등 우리 지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항상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다산박스, 고창군 도서관에 도서 3천권 기증**

**책 기증으로 고향사랑 실천**

고창 출신으로 경기 파주시에서 다산박스를 운영하는 김선식 대표가 꾸준한 도서 기증을 통한 넓은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다산박스(대표 김선식)로부터 도서 3000권(51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다산박스는 지난 2016년 고창군에 2만권, 2022년에는 고창북중학교에 각각 3000권과 5000권을 기증한 바 있다.

기증된 도서는 다산박스에서 출간된 어린이/청소년/성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이며 고창군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고창황윤석도서관,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관내 작은도서관에 나눠 비치·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식 대표는 현재 자기계발, 소설, 인문, 에세이, 전자책, 오디오북, 큰글자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 콘텐츠를 개발하며 출판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꾸준한 도서 기증을 통해 지식 나눔에 앞장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도서 기증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협력 사례로서 도서관 장서



확충을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경암동지사협 취약계층에 열무김치 나눔**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여름철을 맞아 11일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우리동네 똑딱이 봉사단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열무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70가구에 직접 전달됐다.

특히 우리동네 똑딱이 봉사단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열무김치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연일 이어지는 더위로 지쳐 있었는데 직접 찾아와 안부를 살피주고 정성 가득한 김치까지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남원 덕과초, 종이팩·폐건전지 모아 자원순환 실천**

**자원재활용 가치 배워**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10일 덕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직접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을 들고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그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

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화장지로 교환하며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배웠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덕과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종이팩을 씻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몸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익산 영등2동부녀회, 바자회로 이웃사랑 실천**

**판매수익금 지역 나눔에 활용**

익산시 영등2동은 11일 부녀회(회장 소연화)가 행정복지센터 쉼터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영등2동 부녀회원들이 직접 채취한 썬으로 만든 썬떡을 비롯해 참기름과 들기름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도 물품 구매에 동참하며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어르신 섬김 행사'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소연화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물품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행복을 나누는 부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개발공사, 기지저서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

전북개발공사는 11일 전주 혁신도시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기지저 일원에서 임직원 70여 명이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Plogging)'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이 직접 걸으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건강과 환경보전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

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혁신도시 일대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앞으로도 공기업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경영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완주 봉동읍 '뜰안에꽃식물원', 성금 100만원 기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뜰안에꽃식물원(대표 안금란)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안 대표는 평소 꽃집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매년 1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고,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다육식물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안금란 대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 봉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기요금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백열등과 비교해 전기요금 80%절감효과

〈一事一言〉



‘소셜 시티즌’이 흔든 정치관, 청년의 주권 선언이 정치를 바꾼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나간 주말, 잠실 일대를 가득 메운 3만 8000여 명의 함성은 단순한 선거 행정에 대한 향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주권자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당당한 정치 주체로서의 존재를 알린 청년 세대의 주권 선언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행정 참사 앞에서 2030 청년들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의 70~80%를 차지한 이들 청년층은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진영 논리를 거부한 채 ‘내 투표권을 돌려달라’는 상식의 목소리로 광장을 채웠다.

이번 잠실 집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 세대가 보여준 자발성과 집단 지성이다. 과거의 집회가 특정 시민단체나 정당의 조직적인 동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면, 이번 집회는 철저히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두고 ‘소셜 미디어(SNS)로 정보를 빛의 속도로 공유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인류, 즉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의 등장이라고 진단한다. 2008년 미국 케이스 재단 보고서가 예측했던 “이전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디지털로 연결되어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의 모습이 2026년 대한민국 광장에서 마침내 만개한 것이다.

이들 ‘소셜 시티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성 정치권의 ‘오염 시도’에 대한 단호

한 거부감이다. 과거의 대규모 집회는 언제나 기성 정치인들의 손가락 얹기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집회 현장을 찾은 일부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으려 하자 청년들은 거센 아우로 응수하며 그들을 밀어냈다. 오랜 기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들의 분노에 편승하려 했던 이들에게도 발언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모든 시도를 청년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차단해 낸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기성 정치의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에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성숙한 정치적 면역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

기성 세대는 종종 2030 세대를 향해 ‘정치적 무관심’ 혹은 ‘파편화된 개인주의’라는 프레임에 씌우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정치 구조를 외면했던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취업난, 주거 불안정, 불공정성 등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억눌려왔던 청년층의 불만은 나의 신성한 표 한 장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 하상을 서강대 교수의 지적처럼, 소셜미디어를 무기 삼아 스스로 정치 주체가 된 청년들은 이제 기성 정치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조연이 아니라, 직접 대본을 쓰고 무대를 연출하는 당당한 주연, 즉 ‘주권자

운동’의 중심에 섰다.

‘소셜 시티즌’으로 거듭난 2030 세대의 이 같은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들은 문치마식 투표나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언제든지 디지털 공간에서 결속하고 광장으로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유권자 집단이다. 정당의 간판만 보고 표를 던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치권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궤적을 바꾸는 정책으로 승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엄혹한 시대에 오르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가는 과정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분노의 기억은,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에게 스스로의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효능감을 심어주었다. 디지털로 무장하고 상식으로 연대한 소셜 시티즌의 도도한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성 정치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낡은 틀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도태될 뿐이다. 청년이 주체로 우뚝 선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맑고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사설

실무형 인수위 출범, 전북 대전환의 출발점 되길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을 설계할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AI 반도체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겨냥한 조직 체계를 갖추며 정책 중심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인수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비중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인수위는 단순한 정권 인수 기구가 아니라 향후 4년 도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첫 번째 정책 플랫폼이다.

하지만 기대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

니다. 현대차 투자, 새만금 첨단산업 육성,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과제들이다. 인수위는 공약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 실행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다.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기반 확대와 같은 실질적 성과가 뒤따를 때 비로소 전북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첫 단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끼워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인수위가 정정보다 정책, 구호보다 성과를 앞세워 전북 대전환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전좌석 안전띠 아직도 불편하신가요?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이 시기, 도로 위의 수많은 사고 현장을 마주하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스러지는 것을 볼 때다.

그 방심의 중심에는 바로 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불편한 속박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안전띠는 사고 시 생명선이다. 단순한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착용한 운전자에 비해 치사율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다.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2차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띠 미착용에서 비롯된다.

뒷좌석도 예외가 아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잘 지키는 편이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저

조하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 차에 타자마자 안전띠 버클의 찰카 소리를 듣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

교통단속 현장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시민들은 대개 “바빠서 깜빡했다”거나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사고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운전 기술이 아닌 가슴을 가로지르는 얇은 천의 한 줄이다.

설마 나에게 사고가 나겠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고 오늘부터 차에 오르는 모든 동승자에게 “안전띠 댄!”라고 묻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어떨까. 그 짧은 확인이 누군가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주경찰서 범죄예방계  
순경 신은진

오늘의시

비 그친 새벽 산에서 / 황지우

비 그친 새벽 산에서	등성이를 웅크린 채 楸 꽃한 짐승처럼	산을 내려오면 산은 하늘에 두고 온 섬이었다	내 희망의 한 가운데에는 뒹 비어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리운 사람이 있고	더운 김을 뿜는다 이제는 그대를 잊으려 하지도 않으리	날기 위해 질벽으로 달려가는 새처럼	
산은 또 저만치서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각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의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나는너다', '계 눈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무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타임스  
정확한 뉴스, 바울 소식

# 김제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김제시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경제위기군,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권판매점, 미용실, 임대아파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 중심의 '자살예방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통합지원사업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형 자살예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층과 경제위기군 비중이 높은 김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 복권판매점·미용실·안부도시락·요리치유까지

복권판매점 기반 경제위기군 지원 '희망전환 퓌플릭스' 추진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복권판매점을 자살위기 조기발견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제위기군 특화사업 '희망전환 퓌플릭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국가중점사업 핵심과제인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김산동·요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위기를 겪는 시민을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고용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광로포', '대박복권', 'CU김제용덕점' 등 3개소와 생명사랑 복권판매점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징후 인지 교육과 연계 절차를 안내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권판매점 협약 △자살예방교육 및 사업 절차 안내 △고액·충동구매 등 위기신호 포착(QR·리플릿 연계) △자살위험 스크리닝(PHQ-9·SBQ-R) △정신건강·복지·고용 원스톱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미용실 기반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 '물들어' 확대 운영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실이라는 친숙한 생활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노인 자살예방 특화사업 '물들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총 1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백구면 중심 집중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지속 발전해왔다. 올해에는 금산면 소재 '근아해어샵'을 신규 생명사랑 미용실로 지정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시는 노인 자살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용실 기반 '집 밖 유도형 안부서비스'를 운영하며 어르신의 고립감 완화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인식교육과 1:1 무료 염색을 연계한 '물들어 Day' 운영 △자살위험성 평가 및 상담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지속 상담 지원 △정신과 치료비 지원 △복지지원 연계 등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임대아파트 기반 안부도시락 사업 '요리보고 조리보고' 확대  
독거노인과 고령층의 고립 예방을 위한 안부확인 프로젝트 '요리보고 조리보고'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2025년에 시행한 교동휴먼시아(10가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검산H(6가구)와 검산휴먼시아 3단지(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모델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등 협약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락 지원과 함께 정서 회복, 주거환경 개선,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형 모델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주 1회 안부도시락 지원 및 가정방문 △생명만려지원 운영 △생명동행산책 △생명희망공간 주거환경 개선 △통합사례회의 및 지속 심리지원·복지 연계 등이다.

특히 도시락 전달 과정에서 우울감, 사회적 고

립과 건강 악화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사례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형 운영이 특징이다.

중장년 남성 대상 요리치유 프로그램 '5059의 배품시계' 운영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요리 치유 프로그램 '5059의 배품시계'도 운영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중장년 남성 자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백구면과 요촌동 지역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생계리듬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며, 규칙적인 식생활 형성과 정서적 안정, 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주요 내용에는 △요리강사·행정복지센터 업무협약 △생명치유기 교육 △50대 맞춤형 메뉴 개발 △배품시계 감정일기 작성 △개별 심층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혼자 생활하면서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대충 해결했는데, 직접 요리를 하며 생활리듬을 다시 찾게 됐다"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마음건강 회복 돕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속 추진  
최근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돌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감, 청년층의 정서 불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전문 심리상담에 대한 시민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일회성 상담이 아닌 대상자의 심리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통해 정서 회복과 일상 기능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김제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되어 개인별 심리 상태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상담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나 중증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치료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 심리 상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혼자 견디기 어려웠던 마음의 문제를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 "심리상담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전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1. 물들어 Day 운영
2. 희망전환 퓌플릭스 업무협약
3. 요리보고 조리보고 안부도시락 전달
4. 요리보고 조리보고 생명동행산책
5. 5059의 배품시계